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양계민 연구위원 · 김승경 부연구위원

Vol.3 2012. 0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개요

| 조사목적 |

-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조사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비(非)다문화가족 청소년들과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두 집단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보다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조사대상 |

- ▶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 중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어머니 1,502쌍

| 조사방법 |

- ▶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

| 조사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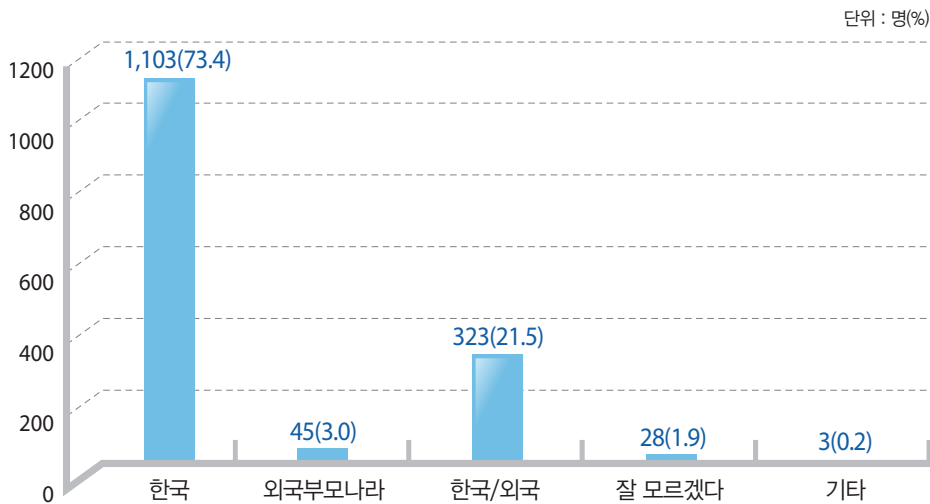
- ▶ 2011년 8월 ~ 10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나는 한국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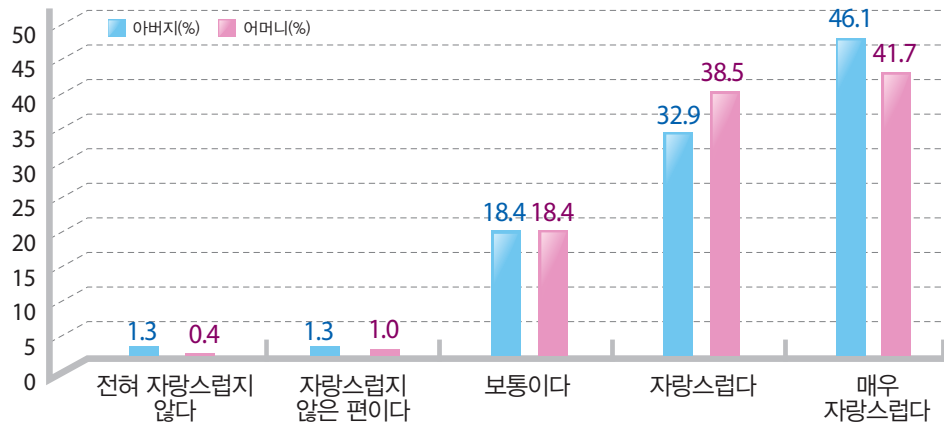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73.4%가 자신을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자신이 '외국출신 부모의 나라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에 불과하였으며,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외국출신 부모의 나라사람이기도 하다'는 이중 정체성을 지닌 비율은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한국 사회에서 구분된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스로는 대부분 '한국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림1] 자신의 국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님이 자랑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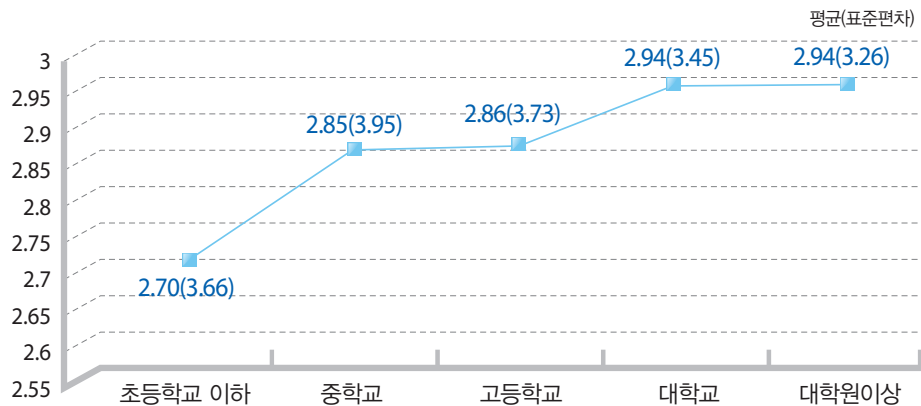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외국출신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어머니에 대해서는 '매우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41.7%, '자랑스러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5%로 전체의 80.2%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매우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46.1%, '자랑스러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9%로 나타나 전체의 78.9%가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스럽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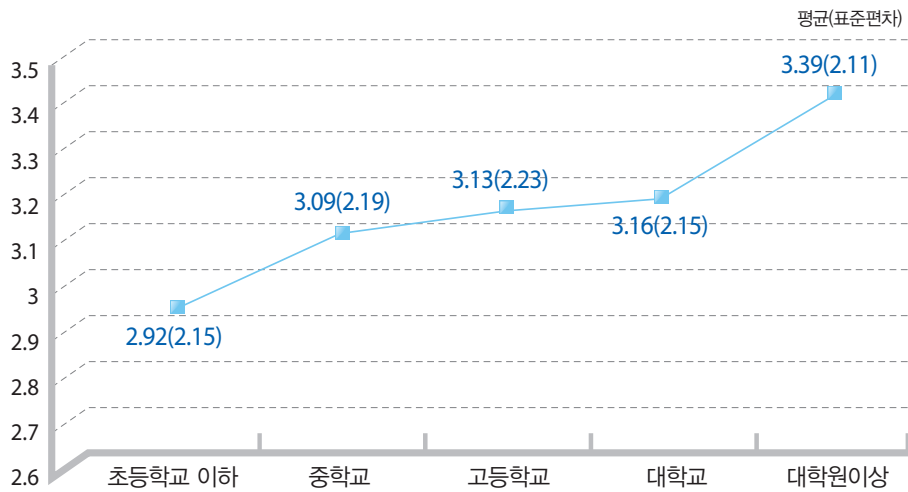
[그림2] 부모님에 대한 생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심리적 발달수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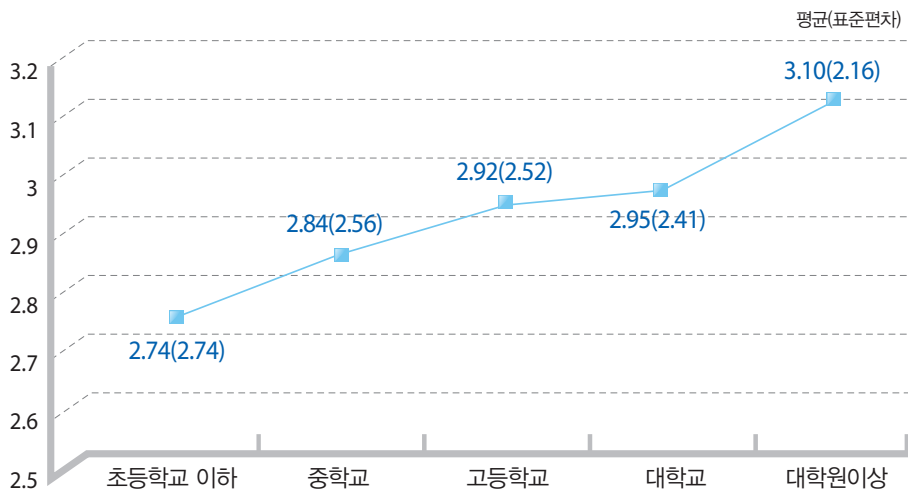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심리적 발달 수준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학습활동 수준 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집단이 단순하고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양태를 지닐 수 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발달수준 역시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취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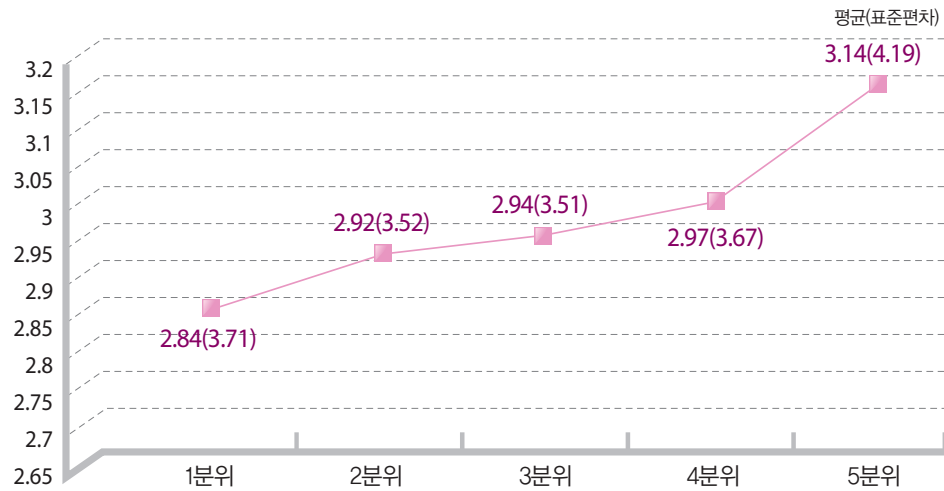
[그림4]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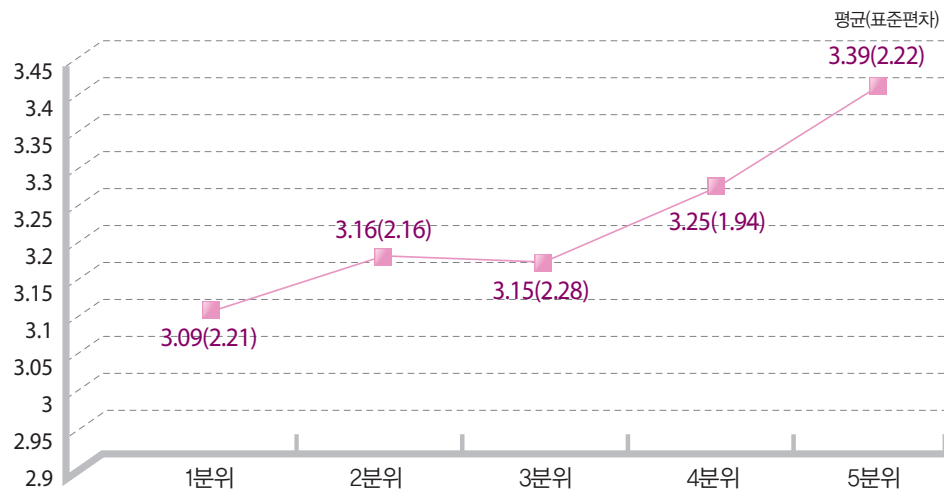
[그림5]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습활동

다문화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의 심리적 발달수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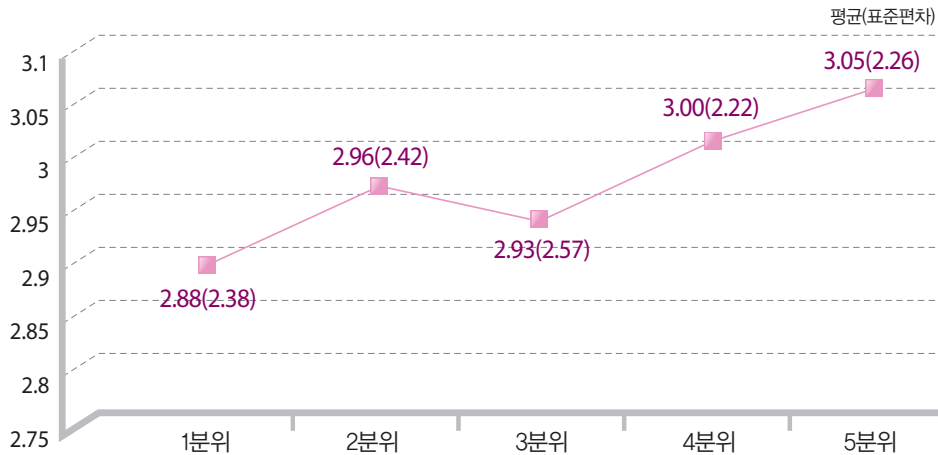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심리적 발달 수준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학습활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다문화가정의 소득수준이 서로 다르며, 소득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양태도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모두 하나의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판단오류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6]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성취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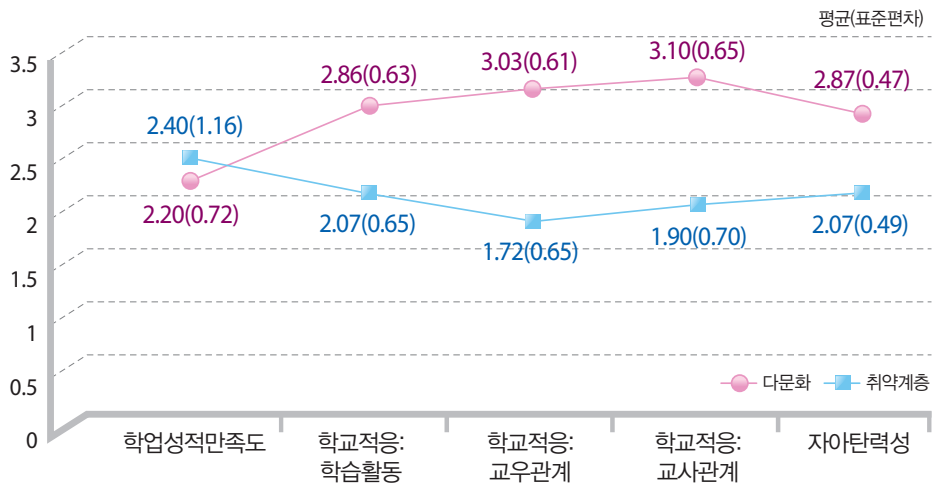
[그림7]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그림8]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학습활동

다문화가정 청소년, 일반 취약계층 청소년보다 발달수준 높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탄력성 등 심리적 행동적 발달수준이 취약계층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집단 전체의 발달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고정관념이고, 일반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오히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보다 더욱 발달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²⁾.



[그림9]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발달수준 비교(저소득층 집단)

1) 학업성적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그만큼 성적을 더 높게 받고 싶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학부모의 학업에 대한 압력이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2) 본 분석은 다문화가정 중 2011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국 2인 이상 비농가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3,713,476원)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눈 후 1분위(월평균 소득수준 1,906,189원 이하)에 해당하는 집단만 선별, 본 연구원의 취약계층청소년 대상 종단연구의 자료와 비교한 결과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02-2188-8800 Fax. 02-2188-8869 www.nypi.re.kr

